

거리마다 구호 “우리식 대로 산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손님으로 찾아간 평양 (1)



평양에서 미주본부 대표로 방북한 정신스님(오른쪽 세번째)과 필자(오른쪽 첫번째)가 북한 중앙TV 기자들을 조선영화 촬영소 가는 길에 만났다. 오른쪽 두번째는 89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대회에 대한인으로 참석했던 정영순 논평원. 왼쪽 첫번째는 사진기자이다.

평양사람들은 예의 그 억센 억양의 말투여서 같은 우리말 이면서도 얼른 알아채리지 못 해 되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서점을 관리하

고급호텔 시설빈약 어려운 경제사정 대변 “반세기 등지고 살면서 말까지 달라 서글퍼”

23일 오후 2시, 북경을 출발한 전세 여객기가 공의 압박감을 건너 1시간20분 가량 비행한 이후이다.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우리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순안비행장은 마중 나온 안내원들과 정복치림의 군인, 그리고 세관원들로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라놓는 서글픈 울음 파놓는 것 같았다. 첫날 우리는 만경대 고향집을 들렀는데 이 코스는 방북하는 모든 손님들이 거쳐가는 첫 코스이다. 만경대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보고 느낀 것은 애함과 가을에 방문객이 많은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절기가 한층 이곳의 인상을 좋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휴지통 필요없는 도시 인구 천만의 세계적 도시인 서울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인구 250만의 도시 평양에도 사람들은 있을 만큼 있었고 오갈 만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은 그리 많지 않아서 신호등이 많지 않았고 대신 수 신호 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방도시들은 아예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었는데 어디를 가도 도시는 휴지통이 필요없을 만큼 깨끗하게 보였다.



북한이 세계관광기구 창립20돌을 기념하여 만든 금강산 모퉁상 유무.



주부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③

재수해서도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 부모를 속이고 배신한 결과였다. 처음에는 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했고 지원하려 했었다. 그런데 계획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내게 더 큰 공부와 소득을 가져오는 걸 알았다. 사바세계는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므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각오가 필요했다.

그들이 이야기 귀를 기울이고 친절히 상담해 주고 나면 보람도 있지만 가끔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도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불교 방문기의 필자 지현정사(본명 장윤철, 진각종 LA포교원장. 사인)는 지난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정신스님(LA수도사주지)과 함께 8박9일간 북한을 방문, 평양 축전을 참관하고 박태호 조선 불교도연맹위원장 등 북한불교대표들과 만났다. 남북해외불교지도자법회, 8·15민중집중동법회 등을 논의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돌아온 지현정사는 북한 불교계의 모습과 그 소감을 5회에 걸쳐 본지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995년, 평양의 4월은 맑았다. 거리는 개나리 진달래 꽃이 만발하였으며 산들바람을 헤치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다. 간판보다 개나리꽃이 더 많은 도시 평양이었다.

우리가(재미교포 '전금' 참관단) 평양에 도착한 것은 4월 23일 오후 2시, 북경을 출발한 전세 여객기가 공의 압박감을 건너 1시간20분 가량 비행한 이후이다.

공항내리자 긴장감이 준비해간 선물이 많아 누구보다 까다로운 검색을 마친 정신스님(광불협 미주본부 상임고문, 이번 나와 함께 방북할 무대보였음)과 나는 일행의 눈총을 받으며 제일 늦게 버스에 올라 평양 시내로 향했다. 또 다른 내 조국의 반쪽 수도인 평양은 이렇게 89년 9월 9일 동안 5년 세월을 돌아온, 그래서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된 낯선 동

소는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그래서 량강호텔이라 이름 붙여진 아주 정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시간이 허락할때 호텔 13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들렀는데 멀리 두류섬과 죽림이 볼 아지랑이 속으로 아름답게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북미 장거리전화 통화 나는 호텔에 있는 동안 미국에 두번 직통전화를 했다. 전화 요금은 한통화에 15원(한화 약4천원)정도였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지불할 수도 없었다. 얼마전 새로 개통된 북미간의 장거리 전화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는 판매원은 3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코교보들의 지친 발문이나 농담도 잘 아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유머러스한 말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다가 '입말'이라 했고, 한글을 '조선 글'이라 했다. 개성 관문점 방문시에 만난 한 택시 운전사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다는 말을 '똥다'라는 표현으로 했다. 실로 반세기의 세월을 등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는 국토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같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